

해외 게임사도 이제는 ‘국내 대리인’ 뒤야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국내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던 해외 모바일 게임이 어느 날 갑자기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고, 이용자가 환불을 문의하려 해도 연락할 곳조차 찾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른바 ‘떡튀’ 논란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시정요청을 받더라도,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담보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도입된 것이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이다.

먼저 입법 경위를 살펴보면,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을 두게 하지는 법안은 2020년 무렵부터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2024년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가 시행된 이후 적발된 위반 사례의 과반이 해외 게임사에 집중되면서 입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결국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개정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능AI

현행 게임산업법 제31조의2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은 ▲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 ▲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 설치 건수가 전년도 일 평균 1천 건 이상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 등을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있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의 보고 요구에 대한 이행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포함한 게임물 표시 의무의 이행을 대리한다. 이러한 지정 의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실무상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게임산업법은 국내대리인이 위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게임사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제31조의2 제4항). 명목상 대리인만 세워두고 확률 표시 등을 방지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게임사에 돌아온다는 의미이다.

둘째,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명은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이용약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대리인은 게임사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지정 대상 여부는 매출액과 설치 건수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마다 점검이 필요하다. 넷째,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자체는 대리인 지정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지정 대상 81개사 중 80개사가 국내대리인 지정을 마쳤다고 한다. 그러나 확률 미표시 사례는 여전히 적발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이용자 피해 예방까지 넓히고 게임사에 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다. 제도가 ‘지정’ 단계를 지나 ‘실질적 이행’을 점검하는 단계로 들어선 셈이다.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해외 게임사는 물론 대리인 역할을 맡는 국내 파트너사 역시 형식적인 지정에 그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갖춰 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전역모와 넓어지는 병역 특례 폐지 공감대



기자 수첩
박 태 홍
(정치부)

1990년대생 가운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은 전역모에 대한 추억 하나 정도는 있을테다. 기자의 부대는 선임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후임들이 돈을 모아 전역모에 사단 마크를 붙여주고, 1년 반 가까이 부대에서 동고동락하던 군대 동기부터 얼굴을 마주 대한 지 한 달도 안되는 이등병까지 소대원의 이름을 바아졌다. 전역모는 전역증과 함께 20대 초반 1년9개월 가량 군에 복무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상징적인 물품이다.

이런 전역모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논란이 됐다. 한국23세 이하(U-23)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아시안

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에게 1대0으로 신승을 거두고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선수는 팬에게 전역모를 받아 썼다고 하는데, 교체로 세 경기에 출전해 총 16분을 뛰고 병역 특례를 받아 빈축을 샀다. 이와 함께 대표팀을 전원 프로선수들로 구성해 일본 사회인 야구팀과 붙여 예선에서 지고, 결승에서 겨우 이긴 야구 대표팀과 묶여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특례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올림픽에서 3위 안에 들거나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한 선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한다. 4주 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요원의 신분은 유지한다. 그동안 총 544시간의 청소년 체육 지도 등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예술·체육요원은 소속 프로팀에서 계속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어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은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다.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심어놓은 자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이 중상을 입은 사고로 안보 상황이 급박한 사이 정치권에선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 목소리가 분출했다. 관련 병역 특례 폐지 법안도 나왔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57명 중 야구·축구 대표팀이 36명에 달하면서 ‘병역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번 대회에도 나왔다.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가 사과에 나서면서 특례 폐지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인다. 일부 선수의 일탈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다만, 태극마크의 무게를 망각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특례 폐지론에 실리는 공감대는 다시 커질 것이다. 아울러 체육 현장 지도자와 미래 체육인들의 자성도 필요하다.

/pth728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2일 (음 9월 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다투기 있으면 손해만 봅니다. 60년생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72년생 어려움이 많으니 중도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84년생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49년생 반기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61년생 막힘이 많아 심신이 편안하질 못합니다. 73년생 자금회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85년생 과소비 또한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0년생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62년생 2년을 기다려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4년생 분명히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86년생 평소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51년생 일손을 놓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63년생 차성을 다해 빌도록 하세요. 75년생 사업은 차차 진전이 있습니다. 87년생 여기저기서 구원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52년생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64년생 업무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6년생 주변의 여건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88년생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도 습관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53년생 큰 욕심을 내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65년생 하늘이 큰 복을 주니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77년생 금전운이 좋습니다. 89년생 동쪽으로의 여행은 길합니다.



54년생 얻는 것이 많으니 세상 일이 태평스럽습니다. 66년생 친구들을 만나세요. 78년생 행복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90년생 사소한 것에 신경 쓴다면 득이 있겠습니다.



55년생 북쪽으로 가세요. 67년생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입니다. 79년생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을 구상하게 됩니다. 91년생 현재 벌이는 사업이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궤도에 올라서게 됩니다.



56년생 차조심해야 하겠습니다. 68년생 욕심을 부리면 서두르게 되니 차분히 생각하세요. 80년생 새로운 운의 흐름을 맞게 되어 기쁘겠습니다. 92년생 집에 있는 것이 좋으니 외출은 삼가하세요.



57년생 작은 소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69년생 주위에 길한 기운이 가득하니 모든 근심은 사라집니다. 81년생 부와 명예를 누릴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93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58년생 크게 바라지 않으면 이룰 수 있습니다. 70년생 막혔던 일들이 서서히 풀립니다. 82년생 본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94년생 인간관계를 견고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59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습니다. 71년생 과음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83년생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95년생 우연한 기회에 이상형의 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김상회의四季

길상 인연

사람들은 백마 탄 왕자나 재벌집 자제와 같은 인물과의 결혼이나 로맨스를 꿈꾼다. 신분 상승이 함께 하는 꿈같은 사랑, 실제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자가 남자가 자신이 갖지 못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배우자나 연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하는 동화 같은 인연을 기대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설사 꿈꾸던 것처럼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뚜껑을 열어보면 불행한 결말을 보여주는 예가 부지기수이다. 팔자에서 이성 간에는 무계지정(戾戔之情)을 꺼리는 데, 처음은 화염처럼 뜨겁게 타오르지만, 그 끝은 냉정한 비정이 되는 인연이기에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인연을 말한다.

세기의 로맨스라 일컬어지는 영국의 에드워드 8세와 심프슨 부인의 인연, 이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인연일까?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국왕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선언하며 왕위를 내려놓았고 그 후 35년간을 해로했지만, 심프슨 부인과 에드워드 8세의 로맨스에 의문을 품게 하는 문서들이 대중에게 속속 알려졌다. 에드워드 8세와 엄문을 퍼뜨릴 당시에 심프슨 부인에게 또 다른 애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나 당시 주영대사로 나와 있던 독일인과의 밀회 등은 이들의 인연이 왕위마저 박차고 나온 에드워드 8세에게는 진정 길상 인연이었는지 가우뚱하게 만든다. 심프슨 부인은 재혼을 넘어 삼혼임에도 왕의 신분이었던 사람과의 결혼으로 신분 상승이 되었으니 엄청난 행운일 수 있으나 에드워드 8세의 입장에서라면 과문의 사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수 있다. 당나라 현종과 천하일색이라 일컬어지던 양귀비의 만남은 또 어떠한가? 양귀비는 경국지색이라는 불명에(?)와 함께 목숨을 잃었다. 극렬한 사랑만큼이나 그 끝도 극렬하다면 명리학에서는 그것을 길상 인연이라고 하지 않는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10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1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